

불량 차 늘었는데 잘 안고쳐 준다



르노삼성 'SM5'

올 리콜차량 두배 급증
시정률은 73%에 그쳐
무상수리 잘 따져보아야

국내 자동차시장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차량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리콜(recall)'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국산·수입차의 리콜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수리비율은 되레 떨어지는 등 사후관리(A/S) 수준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리콜 유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콜 차량 두 배 급증 - 수리비율은 줄어=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산·수입차 제작 결함 차량은 10만3천158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1천670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리콜 건수로는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1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국산차는 9만7천878대로 전체 리콜의 94.9%를 차지했으며, 수입차는 5.1%(5천280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시장 확대 속도에 크게 뒤떨어진다. 시장확대로 리콜은 급증한 반면, 리콜을 통해 실제로 차량이 고쳐진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산차의 결함 시정률은 73.3%로, 지난해(78.5%)에 비해 5.2%포인트 떨어졌다. 또 수입차의 시정률은 40.9%로, 지난해(61.8%)보다 20.9%포인트나 하락했다.

올해 자동차 리콜 주요 현황

차명	리콜대수	생산기간	사유	시정률(%)
기아차 '봉고'	2만705	05. 1. 1~07. 8. 5	경시료에서 차량밀림 현상	80.3
르노삼성 'SM5 LPG'	5만9,160	05. 7. 25~07. 12. 2	연료공급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77.7
GM대우 '토스카 LPG'	3,707	06. 1. 3~06. 5. 9	배선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1.3
벤츠 'ML280 CDI'	236	06. 5. 1~06. 10. 31	와이퍼 전조등 작동 불량	75.8
BMW '320i'	632	07. 3. 14~07. 8. 24	에어컨 조작 시 시동 꺼짐 현상	69.3
푸조 '307HDI'	495	06. 10. 1~07. 1. 31	제동 기능 저하	78.4
크라이슬러 '300C 3.0'	124	08. 1. 19~08. 3. 12	차축 이탈 가능성	33.9

올해 자동차 자체 무상수리 주요 현황

차명	대수	생산기간	수리기간	사유
GM대우 '토스카 LPG'	2026	07. 7. 2~08. 3. 25	08. 7. 25~09. 7. 24	이유 없는 공회전 상승
르노삼성 'QM5'	7079	07. 11. 16~08. 4. 16	8. 4. 28~09. 10. 27	간헐적인 변속충격 엔진 회전수 과다 상승
혼다 'CR-V'	6	07. 3. 13	08. 9. 1~09. 9. 30	피워스티어링 팜프 불량

(자료: 국토해양부)

이는 자동차회사들이 리콜 이후 적극적으로 해당 차량을 고쳐주는 데 인색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자체 무상수리의 경우 국산·수입차 모두 1만5천947대가 해당됐다. 르노삼성은 'QM5'가 특정 주행조건에서 변속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7천79대에 대한 수리에 들어갔다. GM대우는 '토스카 LPG' 2천26대를 공회전 상승으로 무상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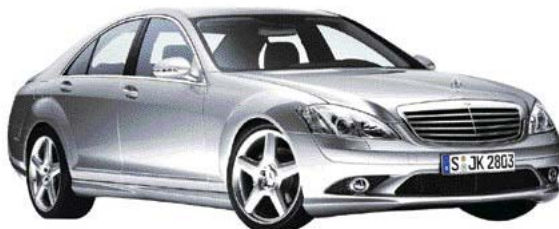
◇국산차 올해 87종 리콜 - 르노삼성 SM5 등 빈도 높아=국산차는 올해 총 87종의 모델이 리콜 됐다.



현대차 '베라크루즈'



GM대우 '토스카'



벤츠 'S600'



크라이슬러 '300C'

이 가운데 현대차 '투스카니'와 기아차 '봉고', GM대우 '토스카 LPG', 르노삼성 'SM5 LPI', 타타대우의 트럭 등 44종이 강제 리콜을 당했다.

지난 2006년에는 GM대우의 '마티즈'에 이어 지난해에는 현대차 '베라크루즈'가 강제리콜의 오점을 남겼다.

현대차는 또 리콜 대상이 지난해 '베라크루즈' 1건에서 올해는 '투스카니'와 '아반떼XD' 등 2건으로 늘었다.

GM대우는 올해 '토스카 LPG'를 배선 결함으로 리콜했다. 지난해 윈스톰 2건, 라세티 1건 등 3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수입차, 판매 증가로 자발적 리콜도 급증=수입차도 판매량이 늘면서 제작 결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수입차는 올 들어 9월까지 리콜 건수가 42개 모델에 걸쳐 총 5천대를 넘어섰다. 이는 총 판매량(5만381대)의 10.5% 수준으로, 자발적 리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올해는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일부 모델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S600', BMW의 '320i' 등 고급 승용차의 리콜이 눈에 띈다.

인피니티는 교통사고시 조수석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G35S'(1천228대)와 'G37C'(148대)를 리콜 조치했다. 벤츠는 지난 9월에 'S600', 'S500' 등 6종류를 자진 리콜했다.

이처럼 자동차업계의 리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서 이를 수리해주는 경우는 크게 리콜과 자체 무상수리로 나뉜다.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결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지만, 자체시정인 경우 이같은 공시 의무가 없다. 또 통상 1년 정도인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리콜이나 자체 무상수리 관련 내용은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 전산망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리콜=차량의 안전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사가 관련 제품을 수리·교환해 주는 제도. 제조사가 스스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명령하는 '강제 리콜'이 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광역시중구) (051) 227-9940

총창점 (광주광역시) (062) 227-9970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010-2000-2070

보양음료 속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궁금하신다면 물어보세요.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시·군별 대리점 모집 영업사원 모집

문의: 062-267-7753 (광주) 011-9612-8700 (서울)